

# 실�크로드의 수행문화와 선

## シルクロードの修行文化と禪

韓 枝 延

### 要旨

宗教と修行の關係は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特に仏教における修行は仏教の究極的目標である悟りに至るために必ず必要な過程である。そして、修行でしか到達できない目標もあるので、その意味が大事である。仏教傳播の過程とルートの相違によって派生した思想的・文化的な導出結果には相違がある。修行方式も傳播過程の地域差によって差別化の様相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理由で、本論文では仏教の東アジアへの傳播地域であった協議的概念のシルクロード、即ち古代西域と名付けられた北方ルートの修行文化について論議する。

北方ルートの出発点はインド内部である可能性もあるが、直接的な影響力を与えたのは西北インドであった。そして、東西交流を通して仏教が東伝する時期の西北インドは大乗仏教であったことを認知するのと同様で、新たな修行方式の一環として仏像が使われてい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共同体生活としての講經活動以外に個人の修行の一環として觀仏修行の痕跡が確認され、これは西域を経てから、その性格が一層明らかにあらわれてくる。また、仏教傳播を目的にした伝法僧たちの個人の修行として觀仏・觀像修行の性格がもっと鮮明となるのを、敦煌地域をはじめ中国の西北地域に分布している石窟寺院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北方と南方の異なった仏教傳播ルートに伴って文化の様相が異なって現れたために方法論において相違点が見えるはずである。ゆえに、本論文では北方、

即ち西北インドからシルクロードに至るまでの地域に共通にみられる修行文化に関する一面を考察する。そして、文化的側面で見える共通点を通して現在東アジア禪の源流を遡って推定する。

I . 글을 시작하며

II . 서북인도의 수행문화

1. 간다라지역의 수행
2. 간다라의 공동수행문화

III . 서역의 수행문화

1. 천산남로와 사막남도의 수행문화
2. 양주지역의 수행문화

IV . 글을 마치며

## 한글요약

宗教와 修行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佛教에서의 修行은 佛教의 궁극적 목표점인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행의 의미는 크다. 불교 전파 과정과 루트에 따라 파생된 思想的·文化的 도출 결과는 상이하다. 수행방식 역시 전파과정의 지역에 따라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 동아시아로의 전파 지역이었던 협의적 개념의 실크로드, 즉 고대 西域이라고 명명되었던 북방루트의 수행문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북방루트의 출발점은 인도 내부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서북인도이다. 그리고 동서교류를 통해 불교가 동전(東傳)하는 시기의 서북인도에서는 대승불교라는 것을 인지함과 무관하게 새로운 수행 방식의

일환으로 불상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로서의 講經활동 이외에 개인 수행의 일환으로 관불수행의 흔적이 확인되고, 이는 서역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불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傳法僧들의 개인 수행으로서 觀佛·觀像 수행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을 둔황 지역을 비롯한 중국 서북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석굴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방과 남방의 불교전파 루트에 수반되는 문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방, 즉 서북인도에서 실크로드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행문화에 대한 일면을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통해 현재 동아시아 선의 원류를 거슬러 추정해본다.

키워드: 불교수행, 선, 수행문화, 간다라, 실크로드, 관상수행

## I. 글을 시작하며

불교에서의 수행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점인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 수행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불교 전파 과정과 루트, 그리고 파생된 결과가 다르듯이 수행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방과 남방에서 각기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아간 불교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수행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수행문화에는 수행방식과 그 수행을 이루기 위해 주변에 성립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행 방식에 따라 형성된 사원, 수행 공간, 수행방식에 따라 성립된 불탑-동시에 성립되기도 하고, 혹은 기존 성립된 불탑에 수행방식에 근거해 덧붙인 부조물 등-, 그리고 수행에 필요한 부분들이 회화로 드러나는 등 많은 내용들을 수행문화의 범주에 넣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방에 한정된 지역과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행문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북방, 즉 동북아시아로 전파되는 시발점으로서의 서북인도에서 시작해 전파의 가교역할을 주도했던 서역, 그리고 중국에 이르는 지역분류를 통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분류한 각 지역에서 수행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는가에 관해 일부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행문화의 전개 양상을 보도록 한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 수행 방식의 지리적 근원점과 인도-서역-중국에 이르는 북방 불교의 수행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수행방식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

다만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전파 경로에서 볼 수 있는 수행문화라는 것이 대단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 수행의 방식에 대한 역사적 근원을 찾아보고자 시도한 글임을 시작에 앞서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II. 서북인도의 수행문화

### 1. 간다라지역의 수행

서북인도(西北印度)의 지정학적 위치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지칭한다. 불교사에 있어서는 특히 쿠산왕조가 제 1, 2 수도로 삼고 주요 활동을 전개했던 광의(廣義)의 간다라지역<sup>(1)</sup>이 서북인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서북인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불교의 전파경로 가운데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로의 전파에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승불교의 흥기 혹은 발원지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파문제를 제외하고 불교발달사적 측면에서 언급해본다면 서북인도는 전통적으로 부파불교적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구법승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현法顯은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에서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장玄奘 역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간다라의 불교사와 일부 사원의 성격에 관해 언급하면서 “소승법을 학습한다<sup>(3)</sup>”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활발한 활동 및 경전의 편찬 및 편집 등의 대승불교경전 내용에 근거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신앙 활동 및 사상의 전개 방식들이 바로 서북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헌상에 언급되는 내용과 최근의 연구성과의 내용을 통해 기원전후의 시기, 서북인도지역이 대승불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당시의 불교 성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부파불교 일색보다는 스스로를 ‘대승불교도’라는 관념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는 대승불교적 성향을 지닌 일군의 무리들이 부파불교 교단 내부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북인도 내에서 불교의 당시 경향성은 수행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이 대승불교적 성향을 지닌 무리는 기존 부파불교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대승불교의 삼세불(三世佛), 다불(多佛)의 사상 등에 관해 사상적인 이해보다 수행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재가자의 신앙적 측면이 더불어 작용하면서 수행과 결합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단적인 예로 탁실라(Taxila)에 위치한 조울리안 사원지(Jaulian Site) 안에는 수많은 불탑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 불탑에서는 특정 사상과 연계할 수 없는 많은 불상이 각 층마다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진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파나 대승불교 교리에서는 그 의미를 찾기 힘든 도상이 불탑을 감싸고 있다.

불탑의 기반부터 각 층마다 구성되어 있는 불상에는 특정 주제가 내포되어 있거나 규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시대에 동일한 조성 방식으로



< 사진 1 > Jaulian Stupa

이루어진 불탑양식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현겁경(賢劫經)』<sup>(6)</sup> 속에서 찾아본 바 있다. 즉, 간다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리신앙과 불탑신앙을 기반으로 불탑에 조율리안 사원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어떤 규칙성이나 일관성이 없이 나열되는 불상조성에 대한 해석을 『현겁경』과 관련지어 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상을 관(觀)하며 수행하는 형식, 다시 말해서 觀佛修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예는 비단 조율리안 사원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모라모라두 사원지(MoraMoradu Site)에서는 주탑(Main Stupa, 主塔) 주변으로 대형불상과 등신대불(等身大佛)이 상당수 조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개념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 MoraMoradu Site

대승불교가 어디서 발원하였고, 대승불교의 경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편찬 및 편집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불교수행 방식의 전개에 있어 서북인도, 특히 간다라 지역에서 기존 수행방식과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발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수행방식은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관(禪觀)의 일종인 관불수행(觀佛修行)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근거로는 첫 번째, 둔황(敦煌) 지역에서 불교전파 시기 유행했던 것이 선관이며, 이와 관련된 경전이 초기부터 다수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불상의 조성이 수행 공간 가운데서도 특히 불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둔황지역의 선관의 유행과 관련된 경전의 유행 및 번역의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동서교류가 일어나는 초기에 둔황은 지리적 특성상

동전(東傳)하는 서쪽의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받아들여진 까닭이다. 물론 둔황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여러 실크로드의 소국(小國)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첨삭되는 내용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초기’가 지칭하는 시기는 기원 2세기 이전이다. 이 시기의 서역제국은 사실상 서북인도로부터 전파되는 불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국이였다.<sup>(7)</sup> 때문에 당시의 둔황지역에서 유행하던 불교의 양상은 서북인도 혹은 인도에서 발전하던 원형에 가까운 불교의 모습을 받아들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보면 둔황지역에서 선관이 유행했던 이면에는 인도 및 서역승들이 중국 내부로 진출하기 이전에 바로 둔황지역에서 언어를 습득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sup>(8)</sup> 동시에 그들의 출신국에서 행했던 수행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중국으로의 불교전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점 역시도 당시의 둔황불교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둔황불교로부터 역으로 서북인도의 불교 수행을 추정해보다면 기원전후의 시기, 선관수행의 내용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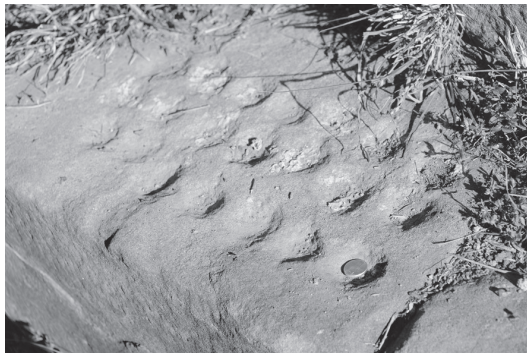
두 번째 근거로 제시된 문제는 불탑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상이 갖는 의미이다. 불상이 출현하기 이전, 무불상(無佛像) 시대에는 붓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종교성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붓다가 불상(佛像)으로 표현되기 이전에도 이미 종교적 상징화 작업은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붓다를 굳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수행에 필요한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불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sup>(9)</sup> 즉, 무불상 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교교단의 중심역할을 하고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던 불탑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탑과 그 주변부에 불상을 나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인 것이다. 신앙의 대상으로 이미 불탑이 존재했고, 강경(講經)과 개인수행에 무게가 실려 있던 당시 부파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처럼 형성된

불상의 모습은 결국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당시 관불수행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연관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위의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간다라에서의 수행은 기존의 수행법과 더불어 관불수행을 행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간다라의 공동수행문화

앞서 간다라 지역에서의 수행이 관불수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원구조 속에서 이러한 요소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불상 조성의 문제와 관련해 그 의미를 관불수행과 연관지어 보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불상 배열과 그 의미, 그리고 사원구조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관불수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간다라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원들은 사원 중심부에 위치한 주탑(Main Stupa), 주탑을 둘러싼 소형탑군, 공용 강경공간, 2층으로 이루어진 개인 수행공간, 공용 목욕탕과 부엌 등이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승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전후에 성립된 사원의 주탑은 주로 인도탑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단부에는 그레코로만(Greco-Roman) 양식의 장식부가 발견된다. 그리고 동전을 쌓았던 흔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어 재가자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실라에 위치한 마니키알라(Manikyala Stupa)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탑의 기단부에 기원전후에 사용되었던 주화와 동일한 크기의



< 사진 3 > Manikyala Stupa



흔적들이 남아 있다.<sup>(10)</sup> 따라서 대승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으로 확신되는 시기의 사원 내부 불탑에는 불상의 흔적이 없고, 신앙의 대상으로써 불탑만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후 성립된 사원의 주탑은 확연하게 기반부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방형기단에 부조되는 불상의 출현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불상의 출현으로 인해 단독불상이 조성될 뿐 아니라 당시까지 붓다를 형상화시키는데 극대화할 수 있었던 불탑에 함께 조성시키는 문화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탑과 불상의 동시 조상을 통한 재가자의 신앙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그 두 번째 해석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본고에서 보고 있는 수행방식의 보조수단으로서의 불상의 개념이다. 사실 불상의 기원과 관련해 특히 간다라 및 마투라 불상에서 특정한 불교교단이 불상 조성에 관여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sup>(11)</sup> 그렇지만 초기 불상 가운데에는 명문(銘文)을 통해 어떤 불상인지 그 성격에 관해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대부분이 단독이거나 삼존상의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본고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은 불상 조성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탑과 주변의 소형탑에 조성된 불상이 관불수행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 사원 내에서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간다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수행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불탑 주변의 수행공간 이외에 개별적인 공간에서 강경이나 관불수행이 아닌 다른 개인 수행을 행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사진 4]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원전부터 형성된 마니키알라 사원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원지에서는 부속으로 활용했던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탁발을 하고 수행에 전념했던 남방불교교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남방불교교단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수행의 공간으로 사원이 활용될 뿐, 의식주 모두를 포괄한 개념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간다라 지역에서의 사원구조는

이를 모두 포괄한 공동생활 및 수행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마니키알라 사원지뿐만 아니라 바달푸르 Badalpure 사원지, 탁티바히 Takht-i-Bahi 사원지 등에서는 부속으로 사용되었던



< 사진 4> Jaulian 사원지의 개인공간

것으로 보이는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도자기 파편 및 그릇 등이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식주를 사원 공간에서 해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며 수행에 전념했던 간다라 불교교단의 일면을 볼 수 있다.

### III. 서역의 수행문화

불교사에서의 서역은 천산남로와 사막남도에 해당되는 루트와 실제 그 루트를 점하고 있던 고대 오아시아 국가인 구자국(龜茲國, 현 신강성 쿠차현)와 우전국(于闐國, 현 신강성 허티엔시)이 대표적인 국가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고대국가의 수행문화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천산남로와 사막남도, 그리고 양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1. 천산남로와 사막남도의 수행문화

천산(天山)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루트에는 고대 구자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구자국은 5세기 초, 중국에서 활동했던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출신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구자국은 왕실 후원으로 승단이 발전하는 등 명실공히 불교국가로 자리잡고 있었다. 훗날 당나라에 복속된 이후에도 불교문화의 형성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석굴형성은 왕실부터 귀족, 승려 그리고 천산남로 루트를 지나면서 교역을 하는 동시에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소그드 상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sup>(13)</sup>

구자국에 형성된 석굴의 특징을 보면 초기 석굴에서는 주로 중심탑주와 붓다의 전생고사(前生故事), 열반상(涅槃像), 미륵불(彌勒佛)의 설법장면이 주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행을 위한 석굴은 주로 개인 수행용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서북인도의 주탑(主塔)과 수행공간이라는 사원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주탑에 해당하는 중심탑주가 모셔져있는 예배당과 개인 수행공간이라는 구조를 가진 셈이다. 초기 석굴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전생고사, 중심탑주에 안치되어 있는 주불 및 후실(後室)의 열반상, 전실 입구부에 위치한 미륵불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150 여 년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다가 이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불도(千佛圖)이다.

키질(Kizil) 석굴, 쿠무틀라(Kumutula) 석굴, 키질가하(Kizil-gaha) 석굴 등에서 공통적으로 4~5 세기 무렵부터 천불도가 벽화의 중심 테마로 등장하는데, 이들 불상을 벽화로 조성하고 각각의 불상 옆에 부처의 명호를 묵서(墨書)로 새겨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살페불 양주지역의 둔황 막고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 세기 무렵부터 서역 특히 천산남로를 기점으로 양주지역까지 천불도 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간다라 지역의 불교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서역에서 수행방식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독창성을 띤 수행과 불교문화의 형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서서히 간다라 지역에서 관불수행이 시작되었다면, 서역에서 독자적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본격적으로 동전(東傳)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인도 및 서북인도에서의 관불수행은 단순히 불상을 관(觀)하는 형태로, 특정 경전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조직적인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지극히 초기적인 형태이다. 그 배경은 초기불교 및 부파 혹은 주류불교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대승불교 흥기를 거치면서 수행방식의 다양성이 갖추어지면서 등장한 현실적인 수행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간다라의 수행체계와 문화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있기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주지하다시피 간다라지역에서의 수행문화가 변화양상을 보이면서 서역에서의 수행문화 역시 변화·발전되는 양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천산남로에서는 석굴 내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의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대 불교국가로 우전국을 들 수 있다. 불교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천산남로와 공통분모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상발전이 있었기 때문에<sup>(14)</sup> 수행문화 역시 동일한 범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천산남로와 비교해보았을 때, 석굴이 형성될 수 없는 여건과 우전국이 간다라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고대 오아시스 국가라는 점 등의 민족성과 자연환경의 배경이 천산남로와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수행과 불교문화가 양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수행의 방식에서는 간다라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즉, 관불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방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우전국에서도 역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우전국을 중심으로 하여 우전국의 통치권 내에 존재했던 오아시스 국가들의 불교 유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란(Miran), 다마고(Damako) 사원지, 라왁(Rawak) 사원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들 사원지에 조성되어 있는 불상에 관해 임영애는 탁실라, 아프가니스탄, 호탄, 미란, 난주 병령사 등지로 이어지는 계보 상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6)</sup> 그러나 불상의 연대와 조각사에서 갖는 특징을 밝히고 있을 뿐, 이들이 갖는 불교사적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

임영애가 밝힌 바와 같이 간다라에서 호탄, 중국 난주까지 동일 선상으로 이어지는 미술의 양식적 계보는 불교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 범주 속에서 형성된 사상, 신앙, 수행의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술사적 양식에서는 불상에 한정지어 그 계보를 밝히고 있어 형식적 계보상의 불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통해 불교사상 및 신앙의 형태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 범주 속의 유사 형식의 문화를 통한 불교사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전국의 불교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일성 및 유사성은 간다라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간다라 수행문화의 발전양상과 그 정통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간다라 불교문화 및 수행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우전국 수행문화의 경우 간다라와 동일하지 않은 자연환경이 바로 우전국 수행문화의 특수성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전국의 위치상 타클라마칸 사막과 곤륜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천산남로와 같은 석굴을 형성시킬 수는 없었다. 때문에 간다라와 동일하게 사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사막의 영향으로 인해 간다라와 동일한 환경에 놓인 사원을 형성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탑을 둘러싼 높은 담장이 형성되고, 바로 이 담장의 내외벽에 관상수행의 대상이 되는 불상이 안치된다. 간다라에서의 불상이 불탑과 주변부에 배치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전국에서는 주탑에 불상이 안치되는 경우보다는 주변 시설에 불상이 안치된다. 즉, 우전국의 사원형태는 간다라의 그것보다 주변부에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수행의 공간으로 활용한 예가 보이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예는 대표적으로 라왁 사원지를 들 수 있다. 임영애를 비롯한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라왁 사원지의 담장에 존재하는 불상의 형식에 관해 시기구분을 통해 분류하고, 형식의 계보를 밝힌 바 있다.<sup>(17)</sup> 그러나 1, 2군 각기 1,000 여 구가 넘는 불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밝히 바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수행의 대상, 즉 관불수행의 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라와 사원지 담장의 1, 2군 불상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근거는 다마고 사원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마고 사원지는 2000 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사원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다마고 사원지는 6~8 세기에 세워지고, 약 400 여 년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원지이다.<sup>(18)</sup> 그런데 고대 우전국 지역에서 발견된 사원지 형태 가운데 미란사원지와 비슷하지만, 지극히 개인수행이 강조된 구조를 가진 사원지이다. 아직 발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나 다마고 1 호 사원지의 크기와 면적이 각기 남북 2m, 동서 1.7m, 면적 4.5 m<sup>2</sup>인 점을 보면 개인수행을 위한 사원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원지 내부의 불상 존재여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 불상이 존재하는 사원지도 있지만, 주로 사방의 벽면에 채색된 불상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좁은 면적의 사원지에 채색된 불상 벽화가 있다는 점은 예불의 목적보다는 개인 수행의 목적에 비중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산남로와 사막남도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고대 오아시스 국가들은 공히 간다라 불교의 영향 내에 있었으며, 수행의 측면에 있어서도 개인수행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특히 관불수행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간다라 지역과 다른 이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서역의 독특한 불교 수행문화를 전개·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양주지역의 수행문화

양주(涼州) 지역은 역사·지리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지리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지역문화는 지극히 서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9)</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주지역을 서역의 종교문화 범주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양주 지역은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는 기초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동단(東端)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초보적 전파 단계의 시기에 있어서 낙양 및 장안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교의 발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양주 불교는 전파의 과정 상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파과정의 끝단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주를 고려해 본다면, 간다라 및 협의적 서역의 의미를 지닌 지역에서 행해졌던 수행방식을 고스란히 전해 받은 지역임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수행방식의 변화 및 발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다.

불교사에 있어 양주는 불교사상이나 의례 등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상·의례 발전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불교경전의 한역화(漢譯化) 작업의 근거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도 및 서역으로부터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는 전법승(傳法僧)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어학 습득지역이 바로 양주이다. 이러한 견해에 관해서는 논자가 그동안 지속해서 주장했던 바인데,<sup>(20)</sup> 이때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가 수행이다. 전법승들이 전파를 목적으로 한 어학습득을 위해 양주에 머무는 동안 실질적인 경전의 번역이나, 사상에 대한 담론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어학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는 결국 수행자로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수행만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주에서의 수행문화는 오히려 중원지역보다 더 발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실제로 양주, 즉 중국 역사상 오량국(五梁國)이 건국되었던 하서회랑(河西回廊) 지역에는 수많은 석굴군이 존재한다. 이 지역 석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둔황 막고굴을 비롯해 유림굴(榆林窟), 주천(酒泉) 문수산(文殊山) 석굴, 장액(張掖) 금탑사(金塔寺) 석굴·마제사(馬蹄寺) 석굴, 무위(武威) 천제산(天梯山) 석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숫자의 석굴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북량(北凉) 및 서진(西晉) 시기에 개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 전법승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은 『고승전(高僧傳)』을 비롯한 많은 불교사서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혜교(慧皎)의 분류법에 따르면 이 시기 인도 및 서역 고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역경(譯經)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신이(神異), 습선(習禪)편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습선편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21 인인데, 그 가운데 6명 만이 하서회랑 출신인물이며 그

외에는 주로 중원지역의 출신인물들이다. 오히려 인도나 서역의 고승은 습선편에서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습선편에 등장하는 6인의 하서회랑 출신 지역 고승들은 모두 활동 시기가 북위 건국 이전 혹은 그와 맞물린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습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도와 서역고승들의 관련 기사는 오히려 역경편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습선편에서는 북위 건국과 맞물려 있는 시점까지 하서회랑 출신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고승전』 「습선편」 하서회랑 출신 승려

이름	출신지역	내용
축담유(竺曇猷)	둔황	젊을 때부터 선정수행
석현호(釋賢護)	양주	중국 광한(廣漢) 엄흥사(嚴興寺) 에서 활동
석법서(釋法緒)	고창	‘축’ 지역에서 활동. 후에 맥적산에 은거함 * 석법서와 관련된 혜승(慧崇) 역시 양주 사문으로 기록
석법성(釋法成)	양주	16 세 출가, 암혈에 은거하며 선을 익힘
석혜람(釋慧覽)	주천	계빈에서 선요(禪要) 배운후, 우전국에 전수, 중국에서 활동
석도법(釋道法)	둔황	

이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출가를 하고 선정수행을 익힌 후, 중원으로 진출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역경편에 기록되어 있는 인도·서역출신의 승려들의 선수행과 관련된 행적 이외에도 하서회랑 출신의 승려들이 선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문헌상의 근거를 바로 『고승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상의 기록 외에도 앞서 잠시 언급한 석굴 내부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선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천



문수산의 천불동은 북량(北凉, 397~439) 시기에 조성된 것이며, ‘천불’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불상에는 각기 명호가 쓰여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당시 벽화에 조성된 천불을 관(觀)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거나 부르는 일명 불명회(佛名會)의 수행집단 혹은 신앙집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sup>(22)</sup> 금탑사 석굴에서도 마찬가지로 ‘천불’을 확인할 수 있어 저거몽손(沮渠蒙遜) 치세 기간인 368~433 년 사이에 조성된 ‘양주석굴’에서는<sup>(23)</sup> 관상수행 위주로 불교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상, 문화상 양주에서는 북위 건국 건립 무렵까지 관상수행이 상당히 발전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행문화가 중원으로 흡수되면서 전통적인 수행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하겠다.

#### IV. 글을 마치며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의 차이점에 있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는 인도로부터의 직접적 전파인지 혹은 가교역할을 했던 지역의 성향이 불교의 경향성을 바꿀 수 있느냐는 변용(變容)의 문제일 것이다. 북방이나 남방 양 루트 모두 불교가 전파되고, 이에 따라 관련 문화 역시 전파된다. 불교라는 전제는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승과 소승이라는 성격으로 구분되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 하겠다. 다만 양 루트에 수반되는 문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양 루트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북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행문화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찾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선의 원류를 문화적 측면에서 거슬러 찾아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북인도 불교의 경향성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간다라 지역에서는 대승이라 인지함과 무관하게 새로운 수행 방식의 일환으로 불상이 이용되고 관불수행의 방식이 도입되었다.

둘째, 간다라 내부에서는 기존의 강경활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인 수행의 일환으로 관불수행이 시작되고, 특정 경전의 내용을 담지 않은 불상의 나열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셋째, 이러한 수행의 경향성은 서역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중원으로의 불교전파 목적과 맞물려 전법승들의 개인 수행, 즉 관불·관상 수행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불교 선 수행의 계보 혹은 그 원류를 찾는 것은 중국 선의 발전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서북인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글머리에서도 밝혔듯이 북방루트 전반에 걸쳐 수행의 흐름을 고찰한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거칠게 전개되었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논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사진출처: 한지연 촬영

## 참고문헌

法顯, 『高僧法顯傳』 (『大正藏』 51)

玄奘, 『大唐西域記』 (『大正藏』 51)

『出三藏記集』 (『大正藏』 55)

『後漢書』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논쟁』, 2015

다카다 오사무 지음, 이숙희 옮김, 『불상의 탄생』, 서울: 예경, 1994

마쓰창 외, 양은경 역, 『중국 불교석굴』, 서울: 다할미디어, 2006

Muhammda Ilyas Bhatti, “Taxila an ancient metropolis of Gandhara”, Pakistan; Umar Zirgham, 2006

禮小山. 王 博 編著 『絲綢之路. 新疆高代文化』, 新疆人民出版社, 2008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서울: 일지사, 1996

한지연, 『서역불교교류사』, 서울: 해조음, 2011

- Muhammad Arif, M.K.Khan Khattak, Syed Shakir Ali Shah, ‘Excavation at the Buddhist Site of Badalpur, Taxila Vallely’, “Ghandharan Studies”vol.5, 2011
- Paipakov K.M., ‘Silk Road and Spread of Religions in Kazakhstan’, 『종교와 문화』 제 1 권
- 李得賢, 「燉煌與莫高窟釋名及其他」, 『青海社會科學』, 5 기, 1988
- 감숙성문화관리국에서는 조사보고서 (「馬蹄寺, 文殊寺, 昌馬諸石窟調查簡報」『文物』, 1965
- 카라시마 세이시 (辛嶋靜志), 「누가 대승경전을 창작하였는가?: 대중부 그리고 방등경전」, 『불교학리뷰』 16 호, 2014
- 석길암, 「화엄경의 편집의 배경과 편집지에 대한 검토」, 『인도철학』 제 40 집, 2014
- 한지연, 「『현겁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서역 불교 수행체계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 2014
- , 「동아시아적 전환 시발점으로서의 둔황 불교에 대한 고찰」, 『인도철학』 제 34 집, 2012

## 【注】

- (1) 간다라와 서북인도에 관한 지정학적, 환경적, 불교사적 위치와 그 의미에 관해서는 한지연의 「서역에서 소승교단과 대승교단이 대립했는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논쟁』, 2015, 25 쪽 참조
- (2) 法顯, 『高僧法顯傳』 권 1(T.51, p.858.b) “ 撻陀衛國……此國人多小乘學 ”
- (3) 玄奘, 『大唐西域記』 권 2(T.51, p.881.a) “ 然皆遵習小乘法教 ”
- (4) 카라시마 세이시 (辛嶋靜志), 「누가 대승경전을 창작하였는가?: 대중부 그리고 방등경전」, 『불교학리뷰』 16 호, 2014, 9-96 쪽.
- (5) 석길암, 「화엄경의 편집의 배경과 편집지에 대한 검토」, 『인도철학』 제 40 집, 2014, 121-126 쪽.
- (6) 한지연, 「『현겁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서역 불교 수행체계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 67 집, 2014.
- (7) 흉노와 중국이 각기 서역 경영을 목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권을 획득하고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서역 제국의 정세가 인도로부터 밀려드는 문화를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반초가 永元 3 年 龜茲國의 왕 우리다를 폐위시키고 백패를 세워 왕으로 삼는 등 (『後漢書』 권 47, 「班超傳」 제 37)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흉노, 중국이 각각 서역 제국의 정치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 (8) 둔황 명칭에 대해 티베트어의 ‘誦經地’ 혹은 ‘誦經處’라는 함의가 있다는 李得賢 (「燉煌與莫高窟釋名及其他」, 『青海社會科學』 5 기, 1988)의 주장 외에도 죽법호가 『不退轉法輪經』을 둔황에서 얻어 역경되었다는 『出三藏記集』 (T.55,p.50,b)의 기록 외에는 대부분의 기록이 둔황에서 수행과 더불어 언어를 습득했다는 내용이다.
- (9) 이러한 언급은 자칫 불상 출현과 수행의 관련성으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불상 출현의 원인이 아니라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불탑과 불탑 주변부에 안치된 여러 불상들에 대한 해석을 수행과 관련한다는 점을 밝힌다.
- (10) Muhammda Ilyas Bhatti, “Taxila an ancient metropolis of Gandhara”, Pakistan; Umar Zirgham, 2006, p.99
- (11) 다카다 오사무 지음, 이숙희 옮김, 『불상의 탄생』, 서울: 예경, 1994, 20 쪽.
- (12) Muhammad Arif, M.K.Khan Khattak, Syed Shakir Ali Shah, ‘Excavation at the Buddhist Site of Badalpur, Taxila Vallely’, “Ghandharan Studies” vol.5, 2011.
- (13) Paipakov K.M., ‘Silk Road and Spread of Religions in Kazakhstan’, 『종교와 문화』 제 1 권.
- (14) 사막남북로의 공통점은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특히 『반야경』을 근간으로 하는 사상의 조류가 존재했고, 사막북로에서는 여기에 『법화경』을, 사막남로에서는 『화엄경』을 더한 사상적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논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한지연, 『西域佛教交流史』, 서울: 해조음, 2011)
- (15) 우전국이 간다라, 특히 탁실라국과 동일한 민족성을 지녔다는 점은 Aurel Stein 등에 의해 밝혀졌다. (한지연, 위의 책, 48-49 쪽)
- (16) 임영애, 『서역불교조각사』, 서울: 일지사, 1996, 84 쪽.
- (17) 임영애, 위의 책, 140-145 쪽.
- (18) 禮小山. 王博 編著 『絲綢之路. 新疆高代文化』, 新疆人民出版社, 2008, 65 쪽.
- (19) 이에 관해 한지연, 「동아시아적 전환 시발점으로서의 둔황 불교에 대한

고찰」, 『인도철학』 제 34 집, (2012)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0) 한지연, 앞의 책, 198-203 쪽.

(21) 한지연, 앞의 논문 [2014], 148 쪽.

(22) 감숙성문물관리국에서는 조사보고서, 「馬蹄寺, 文殊寺, 昌馬諸石窟調查簡報」, 『文物』, 1965.

(東國大學校 慶州校 佛教社會文化研究院 教授)

